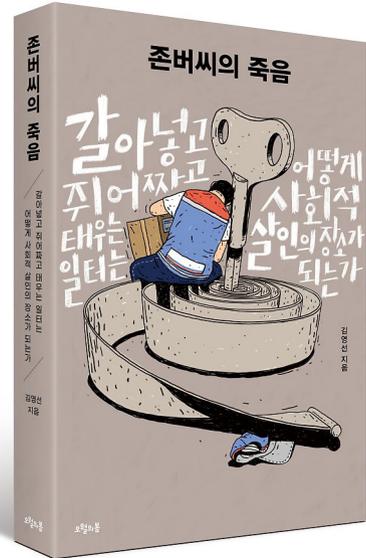


같이 보기

: 서평 『존버씨의 죽음』

우리는 어떤 시간의 —— 미래를 원하는가?

최문선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



지난 9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대응 업무를 하던 신입 공무원 A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올 초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8년 차 크레인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숨진 고인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적 과로 누적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죽음은 ‘과로죽음(과로사·과로자살)’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에 관한 뉴스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듯하다. 일본에서 일찍이 사회문제가 된 과로죽음이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 몇 년 사이에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 제한,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같은 노동자의 인권 및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 법안이 잇달아 생긴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책 『존버씨의 죽음』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과로죽음의 ‘과로’를 조명하고 과로죽음이 과로+성과체제가 불러온 필연적인 죽음임을 밝힌다. 저자는 과로와 죽음 간의 거리를 멀어 보이게 하는 자본주의적 담론 및 장치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를 꼬집고 있다.

저자는 과로죽음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작용할 테지만, 과로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잇단 사망 사고는 예외적인 상황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조건과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과 업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반복된 죽음 자체는 그 조직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나타내는 상징적 징표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에 구조적 문제가 관통하고 있음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인 추정이다.

과거 발전주의 시대에서는 과로죽음이 주로 긴 노동시간과 업무량 때문이었다면,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는 성과주의 시스템이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성과 장치의 핵심은 노동자가 노동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게끔 유도하고, 스스로 조금 더 자신의 노동을 짜내도록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성과 장치는 시간량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업무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퇴근 후라고 하더라도 실적 압박, 마감 압박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실적 압박과 죽음 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성과 장치는 노동자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타자의 고통은 물론 자신의 고통에도 무너지게 한다.

실적 쥐어짜기식 성과주의가 팽배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과로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나 성과주의와 개인의 문제를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성과 장치의 문제적 양상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포착해 대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지점이다. 🍷

